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리틀 라이터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19년 10월 23일(수요일) / 장 소 : 도서관 스테디룸							
참석자 명단	학번	2019*****	이름	박**	학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유**	학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최**	학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최**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1. 뺏속까지 내려가서 써라. 1-1. 책 감상문과 평소 글쓰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쓰기</p> <p>박** :</p> <p>이제는 전문작가만 글을 쓰고 책을 내는 시대가 아니다. 글을 쓰고 싶고, 즉 자신의 책을 만들고 싶다면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말이다. 자신만을 위한 글이라면 형식이 어떠한 상관없이 없지만, 자신의 책이 다른 이에게 읽히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보고 싶다면 이 책에서 알려주는 방법들로 글쓰기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저자는 '자신의 마음을 믿고, 자신이 경험한 인생에 대한 확신을 키워나가야 한다.'라는 방법론을 항상 강조하여 가르친다고 한다. 이는 글쓰기를 배우는 길에는 많은 진리가 담겨 있고 실천적으로 글을 쓴다는 의미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인생 전체를 충실하게 살겠다는 뜻이다. 그렇기에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싶어 매일 글을 쓰려 노력하는 나에게는 다양한 각도에서 글쓰기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만들어주는 책이었다. 작가의 말처럼 글을 쓰다가 자신의 인생이 더 충만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더욱 선물 같지 않을까.</p> <p>나에게 글쓰기란 좀처럼 머무를 수 없이 어딘가로 휩쓸려 가버리는 시간에 필사적으로 대항하는 행위이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그에게서 벗어날 방법은 없고, 그렇게 시간에 질질 끌려가기 싫어 나는 시간에 휩쓸리지 않는 무언가를 남기려 글을 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과거의 내가 적은 어느 슬픔과 행복에 대한 글, 어느 사랑에 관한 글들은 나라는 사람을 표현하고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 되었다. 가끔은 글을 쓰다 보면 친한 친구와 깊은 대화를 나누듯 나와 대화를 하게 되고 나도 몰랐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한다. 곧 글은 나에게 흘렀던 시간과 흐르는 시간만큼 변해가는 나를 기억하게 도와주는 담는 작은 항아리와 같다. 그래서인지 나는 누군가에게 내 생각을 공유하는 글쓰기보다는 일상을 기록하는 글쓰기에 더 익숙하다. 그렇기에 나에게 글쓰기란 나의 일상과 생각의 기록. 나를 돌아보며 내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이다.</p> <p>유** :</p> <p>나는 글 잘 쓰는 사람은 타고난 재능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다. 물론 이들도 피나는 노력을 했을 테지만 나 같이 글재주가 없는 사람은 노력조차 해볼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 나는 아무리 고민해도 한 페이지 글을 채우기 힘든데 그들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글을 쓸 수 있을 거란 동경</p>							

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경험한 가장 큰 변화는 나도 조금씩 글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이 작가가 강조한 “많이 읽고 열심히 들어주고 많이 써보라” 즉, 계속 손을 움직이라는 작가의 당부 는 내가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특히,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 들에 대해 글감 노트를 작성하는 것을 바로 적용해보아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또한, 읽은 책에 대해 소통하는 이 북클럽 활동이야말로 이야기 친구를 만 들라는 작가의 의도와 잘 부합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내면과 감정을 더 깊게 파고들며 글 쓰는 나의 모습이 기대된다.

최** :

우리 일상생활에 글쓰기가 차지하는 부분은 크다. 내가 그동안 썼던 글도 수백 가지는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동안 ‘글쓰기’라 하면 남들의 관점에 도 전형적인 좋은 글, 즉 주어진 양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글이 좋은 글이라 생각했었다. 따라서 틀에 맞춰진 글 밖에 쓸 줄 몰랐던 내게 ‘뺏속 까지 내려가서 써라’는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저자는 남들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마음 속 깊은 곳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글쓰 기라고 말한다. 이런 저자의 생각이 이 책을 통해 독자가 그 의미를 이해하 기 쉽게 전달하며 좋은 글쓰기를 그가 몸소 실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 다.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구절이 하나 있는데, ‘안에서 올라나오는 목소 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바깥에서부터 쏟아지는 비평도 무섭지 않다’이 다. 결국 글쓰기란 현재 느끼는 감정, 기분, 상황이 모두 모여서 완성되는 것이고, 그 글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나만의 유일무이한 글 이라는 뜻이 있는 것이다. 이를 깨닫고서, 나 자신을 스스로 이해하며 남 들의 시선 속에 구애받지 않고 여태 내가 생각했던 고정적인 글쓰기 방식 에서 벗어나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 전 수강하고 있는 교양 강의의 레포트를 쓰며 어려움이 있었던 경험 이 있다. 한 고전소설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작성하는 과제였는데, 관련 배 경 지식이 많이 부족한 더러 평소에 글쓰기를 자주 하지 않아 내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저자의 생 각에 공감하며 읽고 다음과 같은 글쓰기에 대한 나의 생각을 다지게 되었 다. 좋은 글을 쓰기 위해 우선은 자기 생각의 바탕이 되는 넓은 지식이 필 요하며, 지속적인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지식의 범위를 스스로 넓혀 나가 야 한다. 당장은 힘들어도 반복된 연습이 쌓이다 보면 스스로에게 큰 만족 감을 줄 수 있는 좋은 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최** :

인터넷에 ‘글 잘 쓰는 방법’ 이라고 검색하면 ‘뺏속까지 내려가서 써라’ 책 을 추천하는 글 많이 올라온다. 서론을 비롯해 총 61개 소제목의 글과 에필 로그로 이루어져 있어서 부담 없이 술술 읽었다. 또한, ‘카타기리 선사’의 조언을 많이 인용하면서 자신의 글쓰기 활동과 일상생활의 에피소드를 적절 하게 가미해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웠다.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써라. 쓰고, 또 쓰고, 무조건 계속 써라.” 이 문장이 가장 인상 깊었고 공감이 많 이 됐다. 글은 계속해서 쓰지 않으면 감각과 개성을 잃어버리기 쉬운 활동 인 것 같다. 올해 초만 해도 글을 자주 썼는데 대학생이 되면서 글 쓸 시간 을 가지지 못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내내 글이 너무 쓰고 싶어졌다. 글 을 직접 써보고 경험해본 작가가 알려주는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는 하난하 나 제대로 새겨들어야할 조언들이었다. 북클럽을 계기로 글쓰기 훈련을 한

다고 생각하면서 나의 일상, 감정 등 다양한 주제로 글을 남기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글쓰기에 대한 내 생각을 써야 하는데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 나만의 생각을 쓰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내 글을 읽는다고 상상하면 쉽던 일에도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 1학기 때 교양수업에서 처음으로 레포트를 써봤는데 형식을 잘 몰랐고 전문적으로 써야 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부담스러웠다. 또한, 사고와 표현 수업에서 글쓰기 활동을 하는데 교수님과 피드백을 하고 나니 아직 나의 글쓰기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글쓰기 능력은 여러 번 반복해서 써보고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향상된다고 생각한다. 이 책을 읽고 난 후 글쓰기가 힘들고 부담스러운 활동이 아닌 생각을 담아내고 나만의 표현으로 완성하는 작품이라고 여기게 되어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복클럽 팀명	리틀 라이터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19년 10월 30일(수요일) / 장 소 : 기숙사 로비 2층							
참석자 명단	학번	2019****	이름	박**	학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유**	학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최**	학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최**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2.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p> <p>2-1. 감상문</p>							
	<p>박** :</p> <p>고등학생 때 인기 상품에 올라있는 이 책을 읽어본 적이 있다. 그 당시 나에게 이 책은 글쓰기가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며 두려움을 없애고 자신감을 가지게 도와주었다. 수능이 끝나고 나서 괜스레 허한 마음에 우연히 읽게 된 책에서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난다. 대학생이 들어와서 여러 과제 특히 리포트를 쓸 때가 있으면 이 책에서 알려주었던 논리적인 글을 쓰기위해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세 가지의 규칙들이 떠올라 도움을 많이 받았었다. 독서 모임을 통해 이 책을 다시 읽게 되었을 땐 두려움보다는 글쓰기에 대하여 세밀하고 알고 배울 수 있었던 것 같다. 글쓰기에 대하여 세밀하게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독자들에게는 유시민의 글쓰기 특가는 아쉬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글쓰기에 대하여 두려움을 없애고 글쓰기의 본질에 대하여 배우고자 하는 초심자뿐만 아니라 글쓰기에 대하여 세밀하게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독자들에게도 좋은 책이라고 말하고 싶다.</p> <p>유** :</p> <p>글쓰기를 시작하면 항상 막막했고 내가 잘 못 쓸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웠다. 특히, 대학교에서는 꽤 자주 레포트 과제를 내줘 부담감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앞으로 내가 어떻게 “글쓰기 근육”을 키울지 방향을 잡았다. 특히 이 책은 논리적 글쓰기를 잘하고 싶은 나에게 꼭 필요한 책이 돼주었다.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우선 책을 많이 읽어야 하고 당연히</p>							

많이 써봐야 한다. 먼저, 이 책에서 소개해 준 책을 읽으며 기본적인 지식과 어휘를 쌓고 독해력을 키울 것이다. 자투리 글쓰기 시간을 활용해 나의 내면을 표현하는 활동도 꾸준히 실천할 계획이다.

최** :

이 책은 논리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는 글을 쓰는 방법에 집중을 둔다. 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논리적인 글을 쓰기 위해서는 그 근본이 되는 작자의 내면을 먼저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사람다운 감정을 느끼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국 독서를 많이 해야 한다고 느꼈다. 결국 어떤 글이던, 글쓰기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읽고 쓰도록 해야 한다. 과거에 비해 현대는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타인과 글로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할 기회가 많다. 그리고 나의 생각을 다듬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기 쉬운 환경이니, 앞으로 저자가 설명한 방법들을 몸소 실천하면 훗날 좋은 글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최** :

한 커뮤니티에 ‘나쁜 글 고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방송 캡처 사진이 올라왔다. 유시민 작가가 방송에서 못난 글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서 글을 고치는 방법을 설명했다. 그때 본 내용이 인상이 깊어서 유시민 작가의 책을 읽어보고 싶었다. 이 책은 글쓰기 능력을 기르기, 못난 글 피하기, 책 읽기 등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는데 자신이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읽어도 좋을 것 같다. 네 번째 목차인 ‘전략적 독서’에서 그동안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만 읽던 습관을 반성하게 되었다. 소설, 에세이를 좋아해서 책을 고를 때도 이 두 분야가 아니면 쉽게 도전하지 않았다. 유시민 작가는 종합적인 글쓰기 실력을 기르려면 잘 만들어진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어야 한다고 말한다. 편독하던 나의 정곡을 찌르는 말이었다. 이 책을 다 읽을 때쯤엔 사회 이슈와 관련한 사회과학 분야의 책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에 대해 한 줄 평을 하자면 글쓰기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지만 나쁜 독서 습관을 되돌아보고 성찰하게끔 많은 도움이 되었다.

2-2. 238쪽 글을 두 번 고쳐보기

박** :

(1) - 인류에게 불의 저주를 퍼부은 첫 번째 제국주의 세계전쟁이 끝났다. 세계는 다시 ‘영원한 번영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든 것 같았다. 패전국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전쟁배상금 때문에 어려움에 부딪혔다. 식민지 종속국 민중은 변함없는 제국주의의 억압과 수탈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다. 하지만 선진자본주의 나라들은 눈부신 경제적 부흥을 이루었다. 국제정치는 치열한 군비 준 강 경쟁이 벌어졌지만, 사람들은 불과 평년 지나지 않아 전쟁이 ‘아득히 멀어져간 예 이야기’ 인 것처럼 느끼게 되었다. 혼란에 빠졌던 세계 경제도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영국을 중심으로 한 금본위체제가 회복되었다. 전후 경제 부흥을 계기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유럽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더 많은 돈을 벌었다. 세계 경제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자, 신흥부국 미국의 뉴욕의 한 증권거래소는 날마다 오르기만 하는 증권을 사기 위해 모여든 투자자들로 북적거렸다.

(2) - 첫 번째 제국주의 세계전쟁이 끝났다. 세계는 ‘영원한 번영의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전쟁배상금 때문에 어려움에 부

닥쳤다. 아시아-아프리카 민중은 제국주의 억압과 수탈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다. 하지만 선진자본주의 나라들은 눈부신 경제적 부흥을 이루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전쟁을 '아득한 옛 이야기'라고 느꼈다. 세계 경제는 제자리를 찾았고 영국을 중심으로 금본위 체제를 회복했다. 30억 달러 채무국이던 미국은 1차대전 기간에 150억 달러 채권국으로 변신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유럽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더 많은 돈을 벌었다. 세계 경제가 호황을 누리자 미국 뉴욕의 한 증권거래소는 투자자로 복적거렸다.

유** :

(1) - 인류에게 불의 저주를 퍼부은 첫 번째 제국주의 세계전쟁이 끝났다. 그 후 세계는 다시 '영원한 번영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든 것 같았다. 패전국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전쟁배상금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다.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식민지 종속국 민중들은 변함없는 제국주의의 억압과 수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다. 하지만 선진자본주의 나라들은 벌써 눈부신 경제적 부흥을 이룬 상태였다. 군비 증강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국제정치에서는 국제연맹이 세계평화를 위해 힘쓰고 있어서 사람들은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전쟁을 먼 이야기처럼 느꼈다. 혼란에 빠졌던 세계경제도 제자리를 찾아 영국을 중심으로 한 금본위 체제를 회복했다. 특히, 1차대전 기간에 30억 달러의 대외 채무를 지고 있다가 일약 150억 달러의 채권국이 된 미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유럽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돈을 벌었다. 세계경제는 전례 없는 호황을 누렸고 신흥부국인 미국의 뉴욕 '월가'증권거래소는 투자자들로 복적거렸다.

(2) - 인류에게 불의 저주를 퍼부은 첫 번째 제국주의 세계전쟁이 끝났다. 세계는 '영원한 번영의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 (접속사, 부사 삭제) 패전국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전쟁배상금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식민지 종속국 민중은 제국주의의 억압과 수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다.(형용사 삭제) 하지만 선진자본주의 나라들은 눈부신 경제적 부흥을 이루었다.(부사 삭제) 국제 정치는 치열한 군비 증강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국제연맹이 세계 평화를 위해 힘쓰고 있었고 사람들은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전쟁이 '아득히 멀어져간 옛이야기'인 것처럼 느꼈다.(문장 나누기) 세계경제는 제자리를 찾았고 영국을 중심으로 한 금본위 체제가 회복되었다. (군더더기 없애기) 특히 30억 달러의 대외 채무를 지고 있던 미국은 1차대전 기간에 150억 달러의 채권국으로 변신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유럽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더 많은 돈을 벌었다. 세계경제가 전례없는 호황을 누리자 미국 뉴욕 '월가'증권거래소는 투자자들로 복적거렸다. (비슷한 역할 하는 문장요소 제거하기)

최** :

(1) - 인류에게 불의 저주를 퍼부은 첫 번째 제국주의 세계전쟁이 끝났다. 세계는 다시 '영원한 번영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든 것 같았다. 패전국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전쟁배상금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다. 아시아 아프리카의 식민지 종속국 민중들은 변함없는 제국주의의 억압과 수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다. 하지만 선진자본주의 나라들은 눈부신 경제적 부흥을 이루었다. 치열한 군비 증강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국제정치의 표면에서는 국제연맹이 세계 평화를 위해 힘쓰고 있었다. 사람들은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전쟁이 '아득히 멀어져간 옛이야기'인 것처럼 느끼게 되었다. 세계경제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 영국을 중심으로 한 금본위 체제가 회복되었

다. 특히, 미국은 1차 대전 기간을 통해 30억 달러의 대외 채무를 일약 150억 달러의 채권국으로 변신했다. 유럽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전후 경제 부흥으로 돈을 벌었다. 세계경제가 호황을 누리는 데에 따라 미국의 뉴욕 '월가' 증권거래소는 증권을 사기 위해 모여든 투자자들로 북적거렸다.

(2) - 첫 번째 제국주의 세계전쟁이 끝났다. 세계는 다시 '영원한 번영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전쟁배상금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다. 아시아, 아프리카의 식민지 종속국 민중들은 제국주의의 억압과 수탈로부터 벗어나려 몸부림치고 있었다. 하지만 선진자본주의 나라들은 눈부신 경제적 부흥을 이루었다. 치열한 군비 증강 경쟁이 벌어졌지만 표면에서는 국제연맹이 세계 평화를 위해 힘쓰고 있었다. 사람들은 전쟁이 '아득히 멀어진 옛이야기'인 것처럼 느꼈다. 세계경제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 영국을 중심으로 금본위 체제가 회복되었다. 미국은 1차대전 기간을 통해 30억 달러의 대외 채무를 일약 150억 달러의 채권국으로 변신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유럽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돈을 벌었다. 세계경제가 호황을 누리며 미국의 뉴욕 '월가' 증권거래소는 모여든 투자자들로 북적거렸다.

최** :

(1) - 인류에게 불의 저주를 퍼부은 첫 번째 제국주의 세계전쟁이 끝났다. 세계는 다시 '영원한 번영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든 것 같았다. 패전국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전쟁배상금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다. 아시아, 아프리카의 식민지 종속국 민중들은 제국주의의 억압과 수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지만 선진자본주의 나라들은 경제적 부흥을 이루었다. 치열한 군비 증강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국제정치의 표면에는 국제연맹이 세계 평화를 위해 힘쓰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전쟁이 '아득히 멀어져간 옛이야기'인 것처럼 느끼게 되었다. 혼란에 빠졌던 세계경제도 제자리를 찾아 영국을 중심으로 한 금본위 체제가 회복되었다. 특히 미국은 1차대전을 통해 30억 달러의 대외 채무를 지고 있다가 일약 150억 달러의 채권국으로 변신했다. 또한, 미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유럽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전후 경제 부흥을 계기로 돈을 벌었다. 세계경제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면서 미국의 뉴욕 '월가' 증권거래소는 증권을 사기 위해 모여든 투자자들로 북적거렸다.

(2) - 첫 번째 제국주의 세계전쟁이 끝났다. 세계는 다시 '영원한 번영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든 것 같았다. 패전국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전쟁배상금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다. 아시아, 아프리카의 식민지 민중은 제국주의의 억압과 수탈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다. 반면에 선진자본주의 나라들은 경제적 부흥을 이루었다. 국제정치는 치열하게 군비 증강 경쟁을 벌였고, 국제연맹이 세계 평화를 위해 힘썼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전쟁이 '아득히 멀어져간 옛이야기'인 것처럼 느끼게 되었다. 세계경제도 제자리를 찾아 영국을 중심으로 한 금본위 체제가 회복되었다. 특히 미국은 1차 대전으로 30억 달러의 대외 채무를 지다가 일약 150억 달러의 채권국으로 변신했다. 또한, 미국은 폐허가 된 유럽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돈을 벌었다. 세계경제가 호황을 누리자 미국의 뉴욕 '월가' 증권거래소는 증권을 사기 위해 모여든 투자자들로 북적거렸다.

북클럽 팀명	리틀 라이터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19년 11월 6일 (수요일) / 장 소 : 융합인재학부 과방							
참석자 명단	학번	2019****	이름	박**	학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유**	학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최**	학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최**				
<p style="text-align: center;">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p>	3. 창의적 글쓰기							
	<p>3-1. 감상문</p> <p>박** :</p> <p>앞써서 읽은 책들이 글쓰기의 마인드에 대한 설명을 담은 책이라면 이 책은 실제적인 글쓰기 방법들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어 다른 책들과 차별화도니 유익한 책이었다. 책의 부제는 '일주일 반복 설명서'로 7일 동안 함께 고민하고 생각을 정리하게 유도하는 책이다. 책에 나오는 글 쓰는 방법들을 정리하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일상생활에서부터 글쓰기. 두 번째, 단어 연상법. 세 번째, 상상력 자극하기. 작가의 이러한 글 쓰는 방법들을 통하여 상상력 훈련이 얼마나 남들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었다.</p> <p>유** :</p> <p>책을 읽을 때마다 글을 직접 써볼 수 있는 활동이 있는 것이 굉장히 좋았다. 처음에는 자유분방했던 내 글이 이 책을 읽으며 나만의 감정을 담고 나만의 스타일을 가진 글로 변화했다는 것이 놀랍다. 특히 문장의 힘을 길러주는 표현법을 익힌 것이 유익했다.</p> <p>최** :</p> <p>책의 주제답게, 일주일동안 다른 글쓰기 방식으로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한 저자의 발상이 창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자는 글을 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이며, 그것이 정리되었을 때 좋은 글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며 완전한 내 글을 쓸 수 있는 것이라 주장한다. 따라서 나의 생각이 과거 속에 묻히기 전에 미리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앞으로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라도 기록하여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p> <p>최** :</p> <p>상봉행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는 동안 다 읽을 정도로 무겁지 않고 즐거운 분위기를 가진 책이다. 책의 콘셉트는 요일별로 정해진 오늘의 활동을 수행하기로 평소 생각하던 글쓰기와는 다른 느낌을 준다. 나만의 글쓰기 스타일을 찾고,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방법 등을 예시를 통해 잘 설명해주기 때문에 '오늘의 활동'이 어렵지 않았다. '글쓰기'를 떠올리면 정해진 형식에 딱딱한 어조를 사용해야만 할 것 같은 압박감이 들었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은 후 형식에서 벗어나 일기, 블로그, 편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글을 써도 된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어떤 글을 쓰든 내가 가진 문체와 감성, 생각이 잘 드러나면 '나의 글'이라고 할 수 있다는 작가의 말에 용기를 얻게 되</p>							

었다.

3-2. 다음 단어들을 꼭 넣어서 글을 쓴다. 발랄하고 유쾌한 기분이 물씬 나는 분위기로 써본다.

(1) 텀블러, 미니스커트, 유모차, 다이어리, 라이터

박** :

오늘은 기분 좋은 일들만 가득했다. 일단, 새로 생긴 카페에서 오픈 이벤트로 다이어리와 텀블러를 나눠주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미니스커트가 배송 완료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유** : 나는 텀블러와 다이어리를 챙겨 동네 카페에 갔다. 맛있는 음료를 마시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다이어리에 적으며 하루를 정리하는 것이 나만의 힐링 방법이다. 창 밖을 보며 잠시 멍을 때렸다. 이쁜 미니스커트를 입은 한 학생이 거울을 보며 지나간다. 아이를 태운 유모차가 보이자 갑자기 담배와 라이터를 숨기는 한 아저씨의 모습도 보인다.

최** :

오늘은 내 생일이다. 나는 저번 주에 새로 산 미니스커트를 입고 집을 나와 친구 집을 향한다. 바람에 라이터가 일렁이듯이 내 머리칼도 이리저리 흔들린다. 저번 생일 때 친구로부터, 시험을 잘 보라는 의미에서 텀블러를 받았고 올해 생일선물은 계획 있는 삶을 실천하라는 의미에서 다이어리를 받는다. 오늘만큼은 유모차에서 곤히 자는 아기처럼 아무 걱정 없는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만 같다.

최** :

오늘 내가 단단히 미친 게 분명해. 무슨 바람이 들어 이 날씨에 미니스커트를 입겠다고 고집을 피웠는지. 오랜만에 혼자서 바깥 구경을 나갈 생각을 하니 지나치게 들떠 버렸지 뭐야. 또 아침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마스크라가 없어서 고민하는데 번뜩하고 엇그제 술 취해서 한 움큼 챙겨온 라이터가 떠오르더라. 이쑤시개에 라이터 불을 살살 지저서 속눈썹을 올리면 그렇게 잘 올라갈 수가 없어. 스타벅스까지 걸어가는데 스타킹 하나로 버티는 내 두 다리가 불쌍하고 안타까웠어. 신호등에서 벌벌 떨다가 포대기와 양털 옷을 입고 자차에 타고 있는 아기를 봤는데 부럽더라. 아기가 무슨 차냐고? 부모님이 밀어주는 유모차인데 내 생각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야. 내 돈 안 들여도 탈 수 있고, 항상 누군가 밀어주면서 보안이 철저하거든. 사실 내가 뺏어 타고 싶었는데 그러기엔 내 몸집이 크다는 걸 깨달아버려서 포기했어. 진짜로 그랬다간 뉴스에 나올지 몰라. 오늘 내가 가장 잘한 일을 써보자면 처음으로 카페에 텀블러를 챙겨왔어. 텀블러에 음료를 받으면 할인도 되고 환경도 살릴 수 있거든. 그리고 웬지 음료 양이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아메리카노를 마셨는데도 잠이 쏟아지네. 다이어리에 앞으로 일주일 분량의 계획을 써놓으려 했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 계획은 내일 쓰고 집이나 가자.

(2) 달력, 슬리퍼, 압표상, 간이역, 축구공

박** :

오늘은 하루에도 몇 번씩 달력을 보며 기다리던 간이역 이벤트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다. 안될줄 알았던 이벤트에 당첨되어 슬리퍼를 신고있는지도

까먹고 티켓과 상품인 축구공을 받으러 나갔다. 관리실에서 암표상을 잡으러 순찰을 들고 있었다.

유** :

아침에 일어나 달력을 보고서야 오늘이 일요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거실에 틀어놓은 텔레비전에서 한 암표상이 수천만의 돈을 벌었다는 충격적인 뉴스를 어렵פות이 들은 것 같다. 비몽사몽인 나는 집을 어슬렁거리고 있었고, 내 동생이 슬리퍼를 신은 채 축구를 하러 나간다고 축구공을 찾아해매서 온 가족이 웃었다. 저녁에는 가족 모두 간이역이라는 음식점에서 배를 채웠다.

최** :

달력을 보니 오늘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중요한 경기를 하는 날이다. 늦잠을 잔 나는 그대로 슬리퍼를 허둥대며 신고 집 밖을 나왔다. 간이역에 도착하여 열차를 타고 이동하니 설렘의 감정이 더욱 커진다. 경기장에 도착하니 주변에서 암표상이 떠돌며 외치고 있는데, 그들을 보니 내가 오늘 경기를 보는 것이 실감이 난다. 발에 축구공이 달린 듯한 선수의 모습을 상상하며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다.

최** :

어느덧 11월이지만 책상의 달력은 여전히 9월에 멈춰있다. 지난 9월 혼자서 전주 여행을 갔다가 길을 잃고 간이역에서 잠시 머무른 적이 있다. 어쩌나 비가 쏟아지던지 흠뻑 젖은 구두를 대신해 슬리퍼를 사버렸다. 동네의 작은 구멍가게였지만 팔지 않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상품들이 가게를 가득 메웠다. “딸랑” 작은 종소리를 울리며 들어온 그는 깔끔한 셔츠 차림에 비에 젖은 단화를 신고 있었다. 그리고 한 손에는 남색의 장 우산을 들고 있었던 기억이 선명하다. 가게가 익숙한 듯이 그는 축구공을 덩석 집어 계산대에 올려놓았다. 축구공을 한 손에 드느라 오른손등의 핏줄이 선명하게 드러났고 그 핏줄이 나의 마음에 훑 들어왔다. 처음 본 그에게 마음이 뻗긴 건지 아니면 힘의 상징 핏줄이 나를 설레게 만든 건지 알 수 없지만이 아리송한 순간조차 황홀했다. 재빨리 계산하고 나간 그의 뒤를 사박사박 쫓아가니 그가 뒤를 획 하고 쳐다봤다. 그러고선 기다렸다는 듯이 참아왔던 말의 포문을 터뜨렸다. “혹시.. 축구 좋아하세요? 이 근처에서 축구 경기 열리는데 이게 그 경기 입장권인데요. 아무나 구할 수 없는 건데 저는 두 장이나 구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축구 좋아하시면.. 사실래요? 시중보다 5000원이나 싸요.” 이런. 올해는 영 짱이다. 암표상이라니. 비가 와서 잠시 뒤편에 흘렸나 보다. 얼른 집이나 가야지. 아 그리고 전 야구 좋아해요.

(3) 오토바이, 해바라기꽃, 연필, 리본

박** :

오늘은 날이 좋아 오토바이를 타러 나갔다. 도로 양옆으로 활짝 피어있는 해바라기 꽃들을 보며 신나게 드라이브를 했다. 리본이 가득 붙어있는 나의 일기장에 오늘은 이 이야기들을 연필로 꼭꼭 눌러 써야겠다.

유** :

나는 내 학용품 중 리본이 달린 연필을 가장 좋아한다. 내 친구는 해바라기 꽃이 그려진 오토바이를 가장 아낀다.

최** :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니 온 스트레스가 날라가는 듯 하다. 그의 얼굴에 해바라기꽃이 만개한 듯이 잔뜩 행복한 감정이 묻어난다. 잡다한 생각은 전부 지워버리고 지금의 기억만을 뇌 속 연필로 끄적인다. 헬멧에 달린 리본도 그의 마음을 대변하듯이 바람에 맞춰 빠르게 흔들리고 있다.

최** :

탈탈탈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해바라기꽃을 가득 담은 오토바이가 한 낡은 주택 앞에 멈췄다. 족히 50송이는 넘어 보이는 꽃다발의 중심에는 포장지와 어울리지 않는 초록색 리본이 영성하게 묶여있었다. 한참 샛노란 꽃들을 바라보니 어린 날의 그대가 떠올랐다. 급하게 뜯어낸 종이에 몽당연필로 삐뚤삐뚤 적힌 한마디를 잊을 수 없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제야 해바라기 꽃말의 의미가 비로소 이해 간다. 왜냐면 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니까요.

3-2. 다음 단어들을 꼭 넣어서 글을 쓴다. 이번에는 슬픔이나 우울함이 묻어나는 느낌의 짧은 글을 쓴다.

(1) 텔레비전, 회전의자, 식초, 전자레인지

박** :

오늘은 텔레비전에서 잘못된 전자레인지로 인해 일어난 불의의 사고 뉴스가 나왔다. 요즘엔 사고를 예방을 독려하는 뉴스가 많이 나오는 추세이다. 재미있는 방송을 보려해도 회전의자의 위험성, 식초 과다복용 문제와 같이 우울한 얘기들 뿐이다.

유** :

나는 회전의자를 빙빙 돌리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전자레인지에 넣어 둔 음식이 다 조리돼 계속 뽁뽁 소리가 나는데 아무도 꺼내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내가 일어났다. 그런데 그 순간, 내가 앞으로 고꾸라지며 엄마가 부엌에 꺼내놓은 식초통을 덮치고 말았다.

최** :

이 낡은 집 안에서의 모든 가구가 얼핏 시큼한 식초 냄새를 풍기는 듯 하다. 등받이가 떨어져 나간 회전의자는 돌릴 때마다 기괴한 소리가 나고, 구식 텔레비전은 신호가 잡히지 않아 회색 화면만 보여주고 있다. 전자레인지는 청소가 안 된지 오래되었는지 사방에 기름때가 묻어 있다.

최** :

회전의자가 삐그덕 하고 소리를 내든 말든 가족 중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는다. 답답하고 습한 느낌이 가득한 집에는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식초가 뿌려진 듯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볼륨 5로 맞춰둔 텔레비전에는 특별한 영상조차 보이지 않는다. 땡. 정적을 뚫은 짧고 굵은 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진다. 전자레인지 3분이 너무 길었던 탓일까. 따뜻해질 뻔한 우유가 터져 흘러버렸다. 안 그래도 골치 아픈데 우유까지 말썽이니 오늘 하루는 뭘 해도 안 될 것 같다.

(2) 명함, 스파게티, 광화문, 전화, 아메리카노

박** :

오늘은 친구에게 추천받은 레스토랑을 찾았다. 친구가 준 명한에는 광화문 부근에 위치했다는 것과 전화번호만 적혀있어 쉽게 찾아갔다. 추천받은 메인요리인 스파게티와 디저트로 마카롱,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지만 다 재료가 소진되었다고 하여 아무것도 못먹고 돌아왔다.

유** :

오랜만에 가족끼리 외식을 하기로 했다. 아빠가 회사 끝나는 시간에 맞춰 엄마와 동생과 같이 광화문에 갔다.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는 한 사람이 우리 쪽으로 막 뛰어오더니 결국 내 옷에 커피를 쏟았다. 그 사람은 명함을 건네주며 세탁비를 물어 줄테니 전화를 달라고 했다. 걸어오는 아빠가 보였고 나는 젖은 옷을 뒤로 한 채 저녁 먹을 생각에 들떠 있었다. 미리 예약해 둔 스파게티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 회사에서 급한 회의가 생겼다고 전화가 왔다.

최**:

오늘 거래처 직원과 서로 명함을 주고받고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 약속 장소인 광화문으로 향한다. 그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행복해 보이는 표정으로 지나다니는데, 회사 생활에 찌든 나에게서는 그저 꿈만 같은 상황이다. 한편 저녁에 만나기로 한 친구는 전화를 받지 않고 한 시간 째 안 오고 있다. 결국 홀로 예약한 가게에 가서 스파게티를 먹고, 가게 옆의 커피숍에 들러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며 공허함을 달랜다.

최** :

광화문에 새로 opened한 꽤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크림 스파게티와 아메리카노를 시켰다. 이런 여유는 일 년에 한 번 누릴 수 있으면 행운인데 올해는 두 번이나 누리다니 축복받은 한 해임이 분명하다. 이유는 차차 알게 될 테지만 곧 명함이 생길 것만 같다. 아 이렇게 좋은 날에 누가 날 자꾸 깨우는지 전화를 받아보니 “000 님은 상반기 채용에서 불합격하셨습니다.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뿔싸. 이 모든 게 꿈이었다. 꿈에서 깨어나니 또다시 꿈꾸는 게 두렵다. 허망한 꿈을 또 가져 버릴까 봐.

(3) 고무줄, 총, 대걸레, 쟁반, 서점

박** :

나는 고등학생 시절 대걸레와 고무줄 그리고 쟁반을 연결하여 장난감 총을 만들어 가지고 놀았었다. 위험하다는 어른들의 충고를 귀담아듣지 않아 서점의 창문에 금이 가버렸다. 결국 오늘 하루 종일 어른들에게 잔소리를 듣고 말았다.

유** :

대걸레로 서점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만든 고무줄 총을 자랑하며 뛰어다녔다. 복도가 다시 드러워졌다. 쟁반으로 그 친구 머리를 쿵 박아주고 싶었다.

최** :

퇴근하고 어두운 골목 안의 낡은 서점에 들어간다. 손님은 한 명도 없고, 엄마 홀로 카운터에서 졸고 계신다. 뒷곳은 어린아이들이 점심에 한바탕 하

고 갔는지 바닥에는 고무줄과 장난감 총알이 굴러다니는데, 빨지 않은 대걸레 냄새가 나는 듯하다. 엄마가 일어나시기 전에 쟁반 크기의 먼지 쌓인 책들을 대신 정리한다.

최** :

끊어질 듯한 고무줄로 머리를 대강 묶고 가게 내부를 대걸레로 삭삭 닦는다. 청소가 끝나면 찌개와 반찬이 가득한 쟁반을 머리에 이고 시장의 사람들 사이로 섞여 들어간다. 내가 지나갈 때면 총을 든 군인에게 길을 비켜주듯이 일제히 날 피해 다닌다. 나도 사람들과 물건들을 피하는데 단 하나, 피할 수 없는 곳이 있다. 바로 서점. 쟁반 위의 반찬 가짓수를 세는 게 아니라 책의 쪽수를 세고 책과 함께 날을 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음식 냄새가 아닌 책 냄새를 맡고 거스름돈이 아닌 글자를 세는 날. 그런 날이 나를 찾아오다 길을 잃은 건 아닌지 걱정하다 발걸음을 재촉한다.

3-3. 조용히 눈을 감고 편지 쓰고 싶은 한 사람을 떠올려보세요. 이메일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보내는 창에 쓰는 게 아니라, 워드 파일을 열어놓고 마음을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가벼운 인사로, 하고 싶은 말을 이야기하듯이 적은 후 끝인사로 이어지는 매끄러운 편지를 짧게 적어보세요. 지금까지 하나에서 확장되어 떠올렸던 단어, 기법을 적절히 활용해봅니다.

박**:

오늘 하루 수고한 나에게
저번 1학기를 아쉽게 보낸 것 같아 이번 2학기는 바쁘게 살아봐야지 결심했었는데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다. 비록 대단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는 것 같아 좋은 방향으로 성장해가고 있다고 생각해. 고등학생 때와 비교하면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특히 스스로 자아가 뚜렷하게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 아마 그건 가족들의 영향이 컸겠지? 지금처럼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하는 시간을 꾸준히 가졌으면 좋겠어. 아무리 바쁘더라도 말이야! 그럼 앞으로도 잘 부탁해!! 지금처럼만 조금씩 조금씩 꾸준히 성장하자!!

유** :

엄마, 아빠! 오늘 아침에도 봤지만 그래도 편지를 한 번 써보려고. 뭐, 내가 꽤 자주 편지를 쓰니까 이제 감동 받지도 않겠다. 일단, 어제 신경질 내서 미안해. 주말에 김장하고 와서 다들 피곤한데 내가 괜히 엄마, 아빠 약 올리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사실 나도 처음엔 장난으로 말한 것들인데 서로 힘들다보니까 정말 감정이 상한 것 같아. 하지만 내 진심은 그게 아닌 거 알지~?? 앞으로는 말 예쁘게 할게요~!! 우리 가족 모두 이번 주도 힘차게 보내고 나는 금요일에 가서 엄마, 아빠랑 놀아야지~!! 사랑해요~!!!

최** :

OO아 안녕? 꽤 오랜만에 내 소식을 전하는 것 같다. 뭐 재밌는 일 있을 때 '이거 OO이한테 말해주면 엄청 웃을 텐데!' 라는 생각은 자주 했지만, 혹시나 공부하는데 방해될까봐 쉽게 연락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간간히 안부 인사나 보내는 게 다였는데, 이제 수능이 며칠 안 남았으니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수능이 앞으로의 삶 전부를 결정짓는 것도 아니고, 재

수라는 게 절대 남들에 뒤쳐지는 것이 아니야. 그저 우리가 앞으로 넘어야 할 수많은 산 중 하나인 것이라 생각해. 대학에 진학하던, 취업을 하던, 알바를 하던 사람이라면 뭔가를 배우는 과정은 계속하지? 그 과정 속에서 성공하거나 실패해도, 항상 행복하거나 슬픔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가 어떤 길을 가던, 결과에 크게 연연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강한 마음가짐을 지녔으면 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는 사실이니까, 그걸 바탕으로 자신을 그대로 믿으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거라 생각해. 물론 나는 너가 수험장을 부수고 나올 거라 믿고 있어! 시험 끝나면 그동안 못 했던 거 실컷 하며 놀자!

최** :

찬영아, 안녕. 내가 원래 네 이름을 부르진 않지만 여기엔 네 이름을 써볼게. 벌써 네가 공부를 다시 시작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올해도 끝나가고 있어. 수능에 또 도전하겠다고 기숙학원에서 생활한 네가 정말 대단하게 느껴져. 매일 연락하고 자주 만났던 사람과 떨어져 있으니까 느낀 게 많아. 매달 4일 정도 휴가를 나올 때마다 나랑 만날 시간을 생각하지도 않던 네 모습에 실망감을 느꼈지. 나는 너와 14살 때부터 친구였고, 숨기는 거 없이 다 털어놓는 사이라 너도 나를 만나고 싶어 할 줄 알았어. 하지만 넌 항상 다른 친구들과 미리 약속을 잡고 약속 사이에 비는 시간조차 나한테 양보하지 않더라.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서운해서 너한테 대놓고 서운하다고 말했는데 지금은 서운하다고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해. 친구로 지낸 시간이 반드시 친한 정도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 오랜 친구가 반드시 1순위이면서 올인해야 한다는 법칙은 없으니까. 내가 이미 네 맘속의 우선순위에서 벗어났다는 걸 알고 있어. 이 사실을 부정하려고 했을 때 실망감이 크고 약간의 배신감도 느꼈어. 하지만 지금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부정하지 않을게. 내가 너랑 술자리 스타일이나 성격이 정반대라서 나를 만났을 때 따분하고 지루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나보다 더 잘 맞고 함께 있을 때 편한 친구가 있다면 어찌하면 더 다행이라고 생각해. 나도 7년이라는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너를 대할 수 있을 것 같아.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의 깊이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니까 한결 마음이 편해졌어. 그래도 우린 친구가 맞고 너무나 편한 사이인 건 변함없으니 친구 관계를 잘 유지해보자. 그동안 하고 싶은 거 참으면서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어. 나는 네가 꼭 잘 됐으면 좋겠고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걸 알아줘. 오늘도 술 마신다고 했는데 술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으니 집에 일찍 들어가. 그럼 안녕.

<p>복클럽 팀명</p>	<p>리틀 라이터</p>							
<p>운영일시 / 장소</p>	<p>일 시 : 2019년 11월 13일(수요일) / 장 소 : 기숙사 커뮤니티실</p>							
<p>참석자 명단</p>	<p>학번</p>	<p>2019****</p>	<p>이름</p>	<p>박**</p>	<p>학번</p>		<p>이름</p>	
	<p>학번</p>	<p>2019****</p>	<p>이름</p>	<p>유**</p>	<p>학번</p>		<p>이름</p>	
	<p>학번</p>	<p>2019****</p>	<p>이름</p>	<p>최**</p>	<p>학번</p>		<p>이름</p>	
	<p>학번</p>	<p>2019****</p>	<p>이름</p>	<p>최**</p>				
<p>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p>	<p>4.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4-1. 오늘 하루를 돌아보기. (아쉬운 일, 좋은 일, 화났던 일 등) 박**:</p>							

요즘 들어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다... 밤에는 잠이 안 오고 낮에는 일어나는 게 힘들고. 아마도 밤낮이 바뀌어버린 것 같다. 동아리 기사 수정을 자정에 진행해서 그런가? 노트북을 보다가 잠을 자려 하니 눈이 아파서 잠도 잘 안 오고, 악순환의 반복인 거 같다. 사실 잠은 저번 주부터 부족했다. 시작은 사고와 표현의 토론준비, 다음은 한국 사회리포트, 다음은 한림 알리 기사.. 원래 성격이 일이 다 끝나고 나면 괜찮다고 생각해버리는 단순함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다. 그래도 끝까지 지치지 않고 다 잘 마무리해줘서 스스로에게 너무 고맙다. 오늘은 그동안 수고한 날 위해 휴식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못졌던 잠을 푹 자버릴까?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볼까?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고등학교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다. 매일 같이 보던 친구를 너무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타지에서 봐서 그런지 아니면 힘들었을 때 봐서 그런 건지 여러 감정이 섞여서 시간가는지 모르고 친구와 얘기를 나눈 것 같았다. 친구가 해주는 밥도 먹고, 네일도 받았다. 너무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지 친구의 자취방에서 잠들어 수업을 조금 늦어 지각을 받아서 조금 우울했지만, 그래도 힐링을 진하게 받고 와서 그런지 별로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가끔은 이런 일탈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 같다. 친구와 음식을 먹으며 그동안 힘들었던 것 좋았던 것 속에 있는 얘기를 털어놓다보니 아침에 눈 뜨기 싫을 만큼 힘들었던 일들이 다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오늘 푹 자야지~ 내일도 잘 해보자.

유** :

나는 항상 운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가을이 되니 몸이 점점 더 처지면서 체력이 바닥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불어가는 내 몸을 보면 순간 화가 확 치밀어 오를 때가 있다. 그런데도 운동을 하러 헬스장까지 가기가 얼마나 귀찮은지 수십 번의 내적갈등을 하다 결국 침대에 누워버린다. 드디어 오늘, 11월이 되어서 처음으로 운동을 하러 지하에 내려갔다. 체력의 한계로 결국 나의 운동시간은 30분이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운동을 끝내고 올라오는 기분이 이렇게 좋을 순 없었다.

최** :

최근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자세한 노선은 찾아보지 않아서 우리 집 앞 정류장에 버스가 사라졌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오늘 평소대로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려다 뒤늦게 알게 되었다. 다른 정류장으로 가니 학교로 가는 버스는 이미 떠나 없었고, 결국 나는 비싼 돈을 내고 택시를 탈 수 밖에 없었다. 하루가 시작되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피곤한 기분이 들었다. 겨우 강의실에 도착하고 수업을 듣다 보니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되었는데, 오늘따라 교수님이 늦게 끝내주신다. 바로 다음에 연강이 있었던 터라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허겁지겁 뛰었고 겨우 다음 강의실까지 도착하니, 지치기도 하고 교수님께 화가 나기도 했다. 수업이 모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친구와 연락하여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누니 기분이 훨씬 나아졌다. 친구와 이번 주에 만나자는 약속을 잡고 나니 금세 즐거워졌고 기대가 되었다. 집에 도착하니 아무도 없었고, 라면으로 오늘의 첫 끼를 때우며 배고픔을 달랬다.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으니 갑자기 무척이나 외로운 기분이 들었다. 다 먹고 설거지까지 한 다음, 밀린 과제를 하기 시작했다. 과제를 아무리 해도 끝이 안 나자 화가 나기 시작했다. 계속 하다가는 깊은 우울감에 빠질 것 같아 과제를 멈추고 침대에 누웠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기분이 금

세 좋아지기 시작했다. 오늘은 대체로 피곤하고 공허함이 넘치는 하루였다.

최**:

간신히 영상을 유지하던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다. 아침부터 머리맡의 창문 틈 사이로 으스스한 바람이 들어와서 이불이 소용이 없었다. 토론 준비와 영어 수업의 프로젝트를 준비하느라 늦게 잤더니 머리가 짹 막혀서 일어나기 힘들었다. 이번 주는 장기적인 과제가 많아서 힘듦의 연속이 예상된다. 거기다 힙합 동아리의 피쳐링 무대까지 맡게 되어 이래저래 바쁜 상황이다. 하지만 나는 한가한 날보다 바쁜 날을 더 선호한다.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할 일에 집중하는 내 모습이 마음에 뿌듯함을 느낀다. 1교시 수업이지만 서둘러 일어나 머리를 감고 드라이까지 하고 나니 정신이 멀쩡해졌다. 1교시 수업에서는 몽골 문화를 배우는데 비슷한 단어와 외워야 할 용어가 많아 시험 기간이 걱정된다. 이 수업은 교수님의 필기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집중력이 오래가지 않는데 그 와중에 중학교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 잘 지내냐는 말과 함께 부탁을 꺼내놓는 친구를 무시할 수 없었다. 오죽하면 나한테 부탁을 할까 싶고 한편으론 부탁을 들어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친구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토요일은 늦잠을 자서 할 일을 미루곤 했는데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면 일찍 일어날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덩석 받아들였다. 2교시에는 원어민 교수의 수업인데 2학기 동안 수강 중이지만 정확하게 무엇을 배우는 수업인지 모르겠다. 1학기에는 학교에 적응하느라 이 수업이 편하고 부담이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너무 편했던 것 같다. 2학기가 시작하면서 또다시 수강하니 대학교 영어 수업이 고등학교 영어 수업과 다를 바가 없다는 안타까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문법이나 듣기, 쓰기를 배우지도 않고 수업의 목표와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아서 나까지 혼란에 빠졌다. 그래서 글쓰기는 기술을 배우는 또 다른 영어 수업을 더 좋아하고 기다려진다. 하필 수업이 2분이나 늦게 끝나서 바람을 가르며 3교시 장소로 뛰어갔다. 평소에 2분이면 큰 타격이 없는 찰나의 순간이지만 연속으로 강의가 있을 때는 1분 1초가 중요해진다. 3교시엔 토론의 청중 평가단이 되었는데 졸음이 쏟아져서 생수 한 통을 다 비웠다. 모든 수업이 끝나고 나만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힙합 동아리와의 연습 약속이 있어 곧장 동아리방으로 달려갔다. 우수동아리 대회, 버스킹, 정기 공연으로 무대 경험을 쌓았더라고 낯선 사람들에게 내 목소리를 들려준다는 게 어색하고 긴장이 된다. 오늘이 첫 연습날이라 긴장을 많이 해서 음이 잘 올라가지 않아서 무안했다. 내가 힙합 동아리 무대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 방해가 된 건 아닐까 걱정도 했다. 오늘은 할 일이 많아 혼자만의 시간이 부족해 나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일과 일 사이에 휴식을 취하고 여유가 있어야 일정을 소화할 때도 힘이 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복클럽 팀명	리틀 라이터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19년 11월 20일(수요일) / 장 소 : 기숙사 커뮤니티실							
참석자 명단	학번	2019****	이름	박**	학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유**	학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최**	학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최**				
토의 내용	5. 에세이를 써보고 싶으세요?							

5-1. 2019년을 돌아보면서 아쉬운 점, 잘한 점, 개선할 점 등을 형식 제한 없이 자유롭게 써보기.

박** :

올해 가장 잘한 것은 아마도 일 년의 반은 아무것도 안 하고, 또 일 년의 반은 바쁘게 살아보았다는 것이다. 매일매일 똑같은 패턴의 고등학교를 보내며 대학교에 가서 가장하고 싶은 일은 누구의 터치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정말 그렇게 침대에서 보고 싶었던 영화도 보고, 노래도 듣고, 질리도록 잠도 잤다. 그렇게 소망하고 소망하던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을 살아보니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다. 그중 가장 큰 배움은 무엇을 하던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많다는 것이고, 의미 없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아무것도 안 하며 보낸 한 학기를 통해서도 이러한 것을 배웠으니 말이다. 그리고 나는 바로 그 다음 학기에 바쁘게 살기 위해 이런저런 활동을 했다. 지금 하는 이 독서 모임을 포함하여 행복상담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하고, 지역 아동 봉사활동이나 복지시설 봉사활동도 해보고, 해보고 싶었던 동아리도 들어가고, 공모전도 해보고!! 내가 한 활동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만족을 느끼게 해주는지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활동들을 해보며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인연들이 모두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인복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으니까 말이다. 올해가 끝을 향해 달려가면서 여러 포털사이트에 "올해가 이렇게 무의미하게 지나가다니"라는 글이 적혀있는 걸 보며 나는 과연 올해를 어떻게 보내었을까? 잠시 생각해보았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올해 참 행복했다는 것이다. 신기하게도 정말 신기하게도 올해에는 단 한번도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모든 순간이 좋은 추억으로 남았다. 유난히 잊고 싶지 않은 순간이 많았고, 소중한 순간들도 많았다. 그래서 유독 기록을 하고 싶었고 그러지 못하면 사진으로라도 남기고 싶었다. 어렸을 적 상상하던 화려하고 유난스러운 20살을 보내지는 못했지만 가장 성장하고 나를 찾아가는 시간을 보낸 20살이었다. 후회되는 것은 없다.

(읽은 책을 중심으로)

유** :

올해 나에게 가장 큰 변화는 집에서 나와 처음으로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된 일이다. 주말마다 집에 가기는 하지만 학기 중 대부분 시간을 기숙사에서 보내기 때문이다. 내 인생 처음으로 룸메이트가 생겼다. 새로운 친구와 한 공간에서 모든 것을 공유하며 지내는 것은 분명 특별한 경험이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달랐던 두 사람의 삶의 방식이 점점 맞춰질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다. 내년엔 만날 룸메이트는 어떨까? 약간의 설렘까지 느껴진다.

최**:

나는 올해 20대의 첫 해를 보냈다. 한 해 동안 대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역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자유롭게 행동했었던 것이라 생각한다. 작년까지는 고등학생의 신분으로써, 그런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대학생이 되고 나서 학생 때에 비해 나 스스로 무언가를 독단적으로 할 기회가 많아졌다고 생각한다. 못 가봤던 콘서트도 가보고, 친구들과 함께 1박 2일로 타지에 놀러가기도 하고, 학교에서 새롭게 만난 사람들과 늦게까지 술도 마시고, 그동안 입시 공부를 하며 이런 자유로운 생활을 갈망했었던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스무 살의 대학생활이 가장

즐거울 것이라 자주 말하는데, 이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 느꼈다.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학과 공부에 집중하거나 취업준비를 하느라 더욱 바빠질 것이기에 이런 즐거움을 느끼기 힘들 것이고, 지금이 20대에 있어서 가장 재밌을 시기라 생각한다. 그러나 스무 살을 맞이하며 이리저리 바쁘게 학교생활을 하고 그 끝에 다다라서 올해를 돌아보니, 내가 크게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자유로운 대학생살은 보내지 못한 것 같아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다. 만약 작년 이맘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앞으로의 1년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보낼 수 있을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며 고민했을 것이다.

최** :

20대의 시작을 한림대에서 보냈다.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녀서 당연히 인서울 대학을 갈 줄 알았는데 기대와는 달리 지방대를 오게 되었다. 수능에서 평소 성적보다 낮은 성적을 받게 되었고 수시 면접도 기대 이하의 결과를 받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 입학은 해보고 1학년만 다녀본 후 재수든 반수든 결정하자고 마음을 먹었는데 결국 재수와 반수 그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았다. 노래 동아리 두레박 덕분에 사람들에게 내 목소리를 들려줄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 맘 편히 걱정을 털어놓을 수 있었다. 물론 학과의 선배와 동기들과 빨리 친해져서 인맥을 넓히고 진로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나눌 시간도 가졌다. 서울을 등지고 지방으로 대학을 와야 했을 때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서 스스로를 미워하고 자존감이 낮아졌던 시절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20년을 살면서 가장 아쉬웠던 순간은 대학교를 결정했던 날이다. 기숙사 짐을 싸다 울고 개강 첫 주에 신발장에서 홀로 외롭게 울었던 시간이 안타깝고 가엾기만 하다. 가족의 품을 떠나서 혼자만의 공간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할 만한 일을 찾는 기회를 주는 곳이 대학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내가 직접 겪어 보기 전까진 누구의 말도 100% 믿지 말아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대학에 오니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색다른 경험의 기회가 많아서 오히려 선택의 길에서 고민할 때가 많다. 내가 다니는 대학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만족하지 못하면 본인이 손해 본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눈물로 밤을 지냈던 올해 1월과 2월. 지금 돌이켜 보면 두려움과 걱정이 많아서 자존감을 잃었던 시기였다. 낮아진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할 일을 찾고 바쁘게 사려고 노력한 나에게 칭찬을 하고 싶다. 20살도 아직은 칭찬을 듣고 싶고 응원을 받고 싶은 나이 이니까.

20대의 시작을 알차게 보낸 지선아. 그동안 고생 많았어. 특히 내 몸. 항상 늦게 자서 많이 피곤했지? 방학 때 제대로 수면 보충해줄게. 이제 1학년이 끝났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을 온전히 너의 삶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 대학교 시절이 너의 앞길을 창창하게 만들고 꽃길을 걷게 하는 토대로 기억되게끔 조금만 더 힘내줘.

*북클럽 소감

박** :

우연한 친구의 제안으로 북클럽을 참여하게 되었다. 대학교에 입학하고부터 책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친언니 말을 들으며 나도 대학교에 가면 책을 많이 읽겠다는 다짐을 했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한 학기를 지내보니 과제 끝나면, 시험 끝나면 책 읽어야지 하며 미루다보니 지난 한 학기에 완전하게 다 읽은 책이 3권이 채 안되었다. 고등학교보다 개인 시간과 책을 읽을 환경이 늘어났지만 내가 책을 읽는 시간은 늘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북클럽 활동을 하며 독서라는 것이 시간을 정하고 환경이 갖춰져 있

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책 한권과 나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대학교에 들어와 여러 레포트나 보고서를 작성하며 똑같은 말이라도 더 나은 표현으로, 나의 생각을 글로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되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읽은 글쓰기에 관련된 도서들이 나에게 이러한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독서를 독려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

유** :

매번 학기 초가 되면 이번 학기에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보겠다고 다짐하곤 한다. 하지만 매번 다른 할 일들에 치여 미뤄지지만 할 뿐,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다. 특히, 대학에 들어오니 여러 분야의 지식을 쌓고,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내 생각을 글로써 표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북클럽을 통해 항상 죄책감으로 남아있던 “책 읽기”라는 목표를 달성했을 뿐 아니라 직접 글을 써보며 내가 쓰는 문장들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최** :

좋은 글이 나오기 위해서는, 뇌 속에서의 사고 과정을 거친 다음 그를 바탕으로 적절한 표현 방법을 계속해서 고민해봐야 하는 법이다. 북클럽 활동을 통해 그런 사고를 많이 할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글을 잘 쓰는 방법을 배우가는 것 같다. 평소에 자유로운 형식의 글을 자주 쓰지 않아 이런 과정이 어렵게만 느껴졌었는데 각각 활동과 관련된 주제로 다양한 글을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고력과 표현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동안 내가 썼던 글들을 다시 돌아보는, 새 습관을 형성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앞으로는 글을 쓸 때는 어떻게 하면 더 깔끔해질 수 있는지, 활동하면서 배웠던 글쓰기 방식을 참고하며 끊임없이 검토하고 다듬으며 전보다 한 계단 발전된 글을 완성할 수 있을 것만 같다.

최** :

첫 북클럽 활동 당시에는 친구의 휴학으로 인해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도 못했다. 또한, 내가 관심 있는 주제가 아니라서 책을 읽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읽기가 싫어서 독서를 미루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엔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이 있고 특히나 내가 글을 잘 쓰고 싶었기 때문에 책을 읽고 글을 쓸 때 어려움은 없었다. 세 번째 책 ‘창의적 글쓰기’ 활동 내용을 공유해서 읽다 보니 본인의 성격이 드러나서 신기했고 성향이 다 다르게 느껴져서 신기했다. 글쓰기는 타인의 글쓰기 스타일을 따라 하지 말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발견해야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레포트나 논문 등 전문적인 글을 쓰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글을 쓰는지 파악하는 단계까지는 이르렀다고 확신한다. 또한, 못한 글을 고쳐보고 무엇을 잘 못 썼는지 확인하는 데 많은 용기가 필요했는데 친구들이 잘 따라줘서 고맙다.